

## 구혜선 "김치 가득 안겨준 故김수미...좋은 곳으로 가셨길"

등록 2024.10.26 10:01:03



[서울=뉴시스] 구혜선, 김수미.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캡처) 2024.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배우 김수미(75)를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배우 구혜선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2021년 KBS2 '수미산장'에서 처음으로 선생님을 뵈었어요"라며 김수미와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선생님이 연보라색 꽃을 좋아하신다기에 순수의 상징인 데이지 꽃도 준비해갔었는데요. 정말이지 선생님은 순식간에 말간 소녀의 얼굴이 되어 꽃을 좋아해주시고 따뜻하게 제 손을 잡아주시고 환영으로 맞이해 주셔서 감사했어요"라고 했다.

"촬영 내내 감자(반려견) 한번 쓰담쓰담, 저 한번 쓰담쓰담 예뻐해주시고 박학다식한 모습으로 자신의 철학적 고찰들을 저에게 나누어 주시고, 진심을 다해 '시기를 못 만났을 뿐이지, 너는 예술가다. 너의 세상이 올 거다'라며 덕담도 듬뿍 주셨다"고 떠올렸다.



[서울=뉴시스] 김수미. (사진=구혜선 인스타그램 캡처) 2024.10.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혜선은 "그때의 저는 선생님의 직언을 경청하며 수미 선생님만이 가능한 대체 불가의 매력적 언어나 애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 이후 짜집기된 부정적 영상들이 돌아다니며 저를 재단할때는 물론 며칠 속상하기도 하였으나 이런 저런 서운함을 모두 가릴만큼 선생님은 제게 끝까지 정성을 다해주셨어요"라고 고마워했다.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엔 제 양손에 김치를 가득 안겨주시며 잔반찬들까지 넉넉히 챙겨주시고, 멀어질때까지 손을 흔들며 주셨던 수미 선생님. 선생님은 한 송이의 보라빛 향기셨어요.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을 여전히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히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며.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수 드라마 '전원일기'의 '일용엄니'로 유명한 김수미는 전날 별세했다. 주요 사인은 고혈당 쇼크로 알려졌다. 빈소는 서울 한양대병원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11시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